

경피적 신생검 3,000례의 분석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병리학 교실²

장미현¹ · 박우영¹ · 김정은¹ · 윤정수¹ · 진규복¹ · 황은아¹ · 한승엽¹ · 박성배¹ · 김현철¹ · 최미선²

Analysis of Consecutive 3,000 Cases of Percutaneous Renal Biopsies

Mi Hyun Chang¹, Woo Young Park¹, Jung Eun Kim¹, Jeong Soo Yoon¹, Kyu Bok Jin¹
Eun Ah Hwang¹, Seung Yeup Han¹, Sung Bae Park¹, Hyun Chul Kim¹, Mi Sun Choe²

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¹, Pathology²,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

목적 : 경피적 신생검 3,000례를 분석하여 국내 사구체 질환의 임상양상과 병리소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78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경피적 신생검을 받은 환자 3,000례를 대상으로 신생검 당시의 임상양상, 병리소견을 후향 조사하였다.

결과 : 전체 대상환자의 신생검 당시 평균 나이는 34.5 ± 14.7 세 이었으며 남녀 비는 1.44:1이었다. 신생검 당시 나이는 20세 이하가 547례 (23%), 21-40세 1,061례 (44%), 41-60세 589례 (25%), 61세 이상이 184례 (8%)였다. 20세 이하가 1985년 이전에 29%, 2000년 이후에는 24% 였고, 61세 이상은 1985년 이전에는 1%, 2000년 이후에는 15%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. 79%인 2,381례가 자가 신생검, 21%인 619례가 이식 신생검이었다. 자가 신생검의 적응증은 신증후군 1,074례 (45%), 무증상 요이상 714례 (30%), 전신질환의 신침범 진단 272례 (11%), 급성 신염 증후군 118례 (5%), 만성 신염 95례 (4%), 육안적 혈뇨 67례 (3%)의 순을 보였다. 자가 신생검의 병리학 소견은 IgA 신병증 634례 (26%), 최소변화 신증 510례 (22%), 막성 신염 212례 (9%), 초점분절 사구체 경화증 184례 (8%), 루푸스 신염 157례 (7%), B형간염과 연관된 사구체 신염 114례 (5%) 막증식성 신염 74례 (3%)의 순이었다. 신생검 적응증에 따른 병리 소견은 신증후군에서는 최소변화 신증 47%, 막성 신염 18%, 초점분절 사구체 경화증 14%, IgA 신병증 8%, 막증식성 신염 4%이었고, 무증상 요이상은 IgA 신병증 74%, 정상소견 9%, 경화성 사구체 신염 6%, 비 IgA 혈관간세포증식 사구체 신염 4%이었다. 이식 신생검의 적응증으로는 점진적인 신기능 저하 412례 (66%), 급성 신기능 저하 156례 (25%), 신기능 저하 없이 단백뇨만 발생한 경우 39례 (6%)였으며 이들의 병리소견은 급성 거부반응 39%, 만성 거부반응 22%, 급성 거부반응을 동반한 만성 거부반응 11%, 사구체 신염 13%이었다. 3,000례의 신생검에서 합병증 발생은 신주위 혈종 (22%), 동정맥루 (8%), 육안적 혈뇨 (5%) 등이었으며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았고, 수혈이나 색전술 등 중재적 시술을 필요로 한 경우는 15례 (0.5%)이었으며 생검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.

결론 : 신생검의 가장 많은 적응증은 신증후군, 무증상 요이상 이었으며 병리 소견은 IgA 신병증이 가장 많았다. 국내에서 무증상 요이상으로 신생검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IgA 신병증은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다. 신생검은 비교적 안전하고 신질환의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무증상 요이상만을 보이는 환자도 적극적으로 신생검을 실시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.